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새해에도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웃음꽃 피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용순(오른쪽)

##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원당시장은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아는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시장 중앙통로 정비, 배달서비스 개시, 쾌적한 환경조성이 진행되어 변화의 모습이 눈에 띈다. 지난해 2월에 조성된 고객쉼터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한다. 이용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과 카페, 문화 공간, 교육장 등이 마련됐다. 교육장에서는 주민 평생교육, 마을 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교육, 주민 동아리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지난해 6월 빗물받이 보강 공사와 방수 공사 등을 실시해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원당시장에 화재 발생 시 소방서로 자동通報되는 화재 알림 시설을 구축해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도 확보했다.

### + 원당시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기는 방법

#### 안심콜 방역패스

안심콜 방역패스는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및 예방접종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에 대한 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작지만 알찬 시장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시장 한 바퀴 둘러보자.  
시장을 찾는 반가운 발걸음 속에서 원당시장은 사람 소리 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 보이는 대로, 원하는 만큼

원당시장은 먹거리의 천국이다. 현장에서 즐기는 즉석 음식이 다양하고 현대인들의 풍성한 식탁을 완성하는 반조리식품과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하다. 천국의 문은 1문에서 바로 시작된다. 추운 날 손을 녹여주고 출출한 배를 채워주는 어묵을 시작으로 발걸음을 늦추는 먹거리의 행렬이 이어진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싱싱한 식재료를 바닥에 깔아놓은 뒤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곤 한다.

명절이 되면 원당시장의 활기는 배가 된다. 제사상의 음식들을 직접 하기 보다는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원당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원당시장의 장점은 원하는 만큼 음식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전집에서도 원하는 전을 골라 담은 다음, 그릇을 저울에 재고 정해진 가격을 내면 된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구입하기 때문에 남기는 경우도 적을뿐더러 좋아하는 종류만 사도 돼서 반응이 좋다. 전 뿐만 아니라 떡, 과일 역시 집집마다 무게 당 가격을 매겨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활력이 점점 잃어가는 요즘, 작지만 알찬 시장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시장 한 바퀴 둘러보자. 시장을 찾는 반가운 발걸음 속에서 원당시장은 사람 소리 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



“인구 109만의 대도시 고양특례시의 발걸음에 맞춰 원당시장이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 양철용



#### 고양페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사용자는 현장 할인과 소득공제 30%가 적용된다.

#### 배송서비스

상품을 구입한 후, 배송사무실에 방문하여 배송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콜센터(031-963-0013)로 전화하면 물품 주문 및 배송이 한 번에 이뤄진다.